

# 「삼국사기」에 나타난 언어와 행위의 주술성 고찰

국어국문학과

2013\*\*\*\*\* 최재희

## - 목 차 -

- I. 서론
- II. 본론
  - 1. 용의 예시적 성격
  - 2. 혜성(彗星)의 출몰(出沒)
- III. 결론
- 참고문헌

## I. 서론

언어와 행위가 가지는 주술성은 고대 사회의 기록에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로버트 단턴의 『고양이 대학살』 제 2 장 “노동자들은 폭동한다”에서 노동자들은 부르주아에 저항하여 그들의 고양이를 학살하는 일종의 축제를 벌인다. 이러한 행위는 그들만의 ‘복사’ 혹은 ‘흉내내기’라는 의식으로 표현된다. 고양이는 근세 초 프랑스 사람들에게 마법, 주술, 생식력, 여성의 성욕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부르주아에게 장난을 걸기에 가장 완벽한 대상은 고양이였고 미신적이고 마법적인 요소를 지닌 고양이를 죽이는 행위에는 주술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위는 당시 대중들의 의례와 상징을 넘어 근대 초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를 고찰하는 사건이 된다.

망탈리테 사관으로 대표되는 저자의 서술 방법에는 특수성을 가진 자료를 통해 일반성 찾는 것이 있는데, 이는 『고양이 대학살』 속 고양이가 갖는 주술성과 마찬가지로 『삼국사기』에서도 언어와 행위를 통해 주술성이 나타난다는 것으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바로 용의 출현으로 인한 나라의 중요 사건 예시와 혜성의 출몰로 표현되는 왜의 침입과 격퇴이다.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는 당시 왕에게 큰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들었는가<sup>1</sup> 하면 신채호 선생에 의해 사대사상에 고취하여 거의 역사적 가치가 없다는 혹평을 듣기도 했다.<sup>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삼국사기』를 읽지 않으면 한국인이 아니<sup>3</sup>라는 조갑제님의 말을 따르는 것인지 그 인기가 사그라질 줄 모르며 이제까지 많은 선행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주술성’이라는 키워드로 『삼국사기』를 연구한 전례는 거의 없다. 이에 비해 『삼국유사』는 확실히 그 설화와 향가 등에서 보이는 주술성에 관련된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필자는 분명 『삼국사기』에서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주술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다고 보았기에 본고에서 『삼국사기』에 표현된 탄생과 죽음을 예시하는 용의 출현과 혜성(雨籬)의 출몰(雨籬) 등을 통해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이는 언어와 행위의 주술성을 고찰하고 당대 사람들의 인식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 II. 본론

### 1. 용의 예시적 성격<sup>4</sup>

『삼국사기』를 읽다 보면 흔히 알고 있던 자연 현상에서 비롯된 서술뿐만 아니라 실재하지 않는 상상의 동물인 용의 출현이 빈번하게 기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용이라는 것은 동·서양의 신화나 전설에 등장하는 상상의 동물로 그가 지니는 상징적 의미는 지역이나 문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하지만 거대한 뱀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초자연적인 신성한 능력을 지닌 상서로운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고대 인도에서 용은 지하 세계에서 대지의 보물을 지키는 존재로 묘사되는데, 이는 불교에서 불법(佛法)을 수호하는 용왕(龍王)으로 표현된다. 용왕은 강과 호수·바다를 지키는 물의 신으로 겨울에는 지하 깊은 곳에서 살다가 봄에는 하늘로 오르고, 천기(天氣)를 다스리는 힘을 지니고 있어 용왕이 화가 나면 가뭄이 들고 그 화를 달래야만 비를 내려준다고 여겨졌다.<sup>5</sup>

중국에서 용은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는 신이(神異)한 영수(靈獸)로 여겨졌다. 특히 비는 농사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요인이기에 용이 비와 가뭄 홍수 등을 다스리는 존재로 숭배되어 사람들은 가뭄이 들면 용의 형상을 본떠 춤을 추면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또한 중국 고대

<sup>1</sup> 金富軾, 『高麗史』 卷98, 列傳 11

<sup>2</sup> 신채호, 『조선상고사』 총론, 1972 (1931. 06. 10. ~ 10. 14, 조선일보 {조선사} 연재)

<sup>3</sup> 趙甲濟, 「한국인이려면 三國史記를 읽어야」, 2007

<sup>4</sup> 황민정, 「한국 고대사회의 용 신앙 연구 :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 논문, 1999.  
-위 내용은 다음을 참고함.

<sup>5</sup>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9997&cid=40942&categoryId=32174#TABLE\\_OF\\_CONTENT3](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9997&cid=40942&categoryId=32174#TABLE_OF_CONTENT3), 검색일자: 2015.12.08)

점성술에서는 용을 백호(白虎) 주작(朱雀) 현무(玄武)와 함께 성좌(星座)를 나타내는 동물로 신성시하여 동쪽의 7 별자리를 청룡(靑龍)이라 하였다. 고대 중국인들에게 용은 우주에 존재하는 신성한 자연력을 상징하는 존재이자 모든 동물들의 왕이었던 것이다.<sup>6</sup>

한국에서도 용은 고대부터 풍운(風雲)의 조화를 다스리는 수신(水神) 해신(海神)으로 여겨졌다. 그렇기에 일찍부터 민간과 국가 차원에서 국가의 수호신이자 왕실의 조상신으로, 그리고 농경을 보호하는 비의 신이자 풍과를 주재하는 바다의 신으로 풍년(豐年)과 풍어(風漁)를 기원하기 위해 숭배되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기록된 용의 출현과 설화를 통해 그 존재를 우리 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가 잘 드러난다. 특히 『삼국사기』 신라 진흥왕 551년에는 명산(名山) · 대천(大川)의 용신(龍神)을 섬기는 팔관회(八關會)가 국가 차원에서 처음 실시되었는데, 이러한 풍습은 고려 시대까지 이어지게 된다.<sup>7</sup>

『삼국사기』에서 보이는 용의 출현에 대한 기록은 그 수가 적어도 20 건 이상이나 된다. 신라의 경우 특히 각 본기(本紀) 마다 나타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용의 출현 횟수가 높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용의 출현은 실제 용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용은 상상 속의 동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용이 국가의 수호신이자 왕실의 조상신으로 여겨졌다는 점에 착안하면 『삼국사기』에 기록된 용의 출현이 왕의 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이는 정치적인 의미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용의 출현이 기록된 이후 왕실에는 왕 혹은 왕비가 탄생하거나 사망했다. 또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인 기우제의 대상은 용신이 되었다.

아래는 『삼국사기』에 기록된 용의 출현을 정리한 것이다.

#### 신라 본기(新羅本紀) 제 1

시조 혁거세거서간(始祖 赫居世居西干). 5 년 정월에 용이 알영(闕英) 우물에 나타나, 그의 오른쪽 갈빗대에서 한 계집아이를 낳았다. 60 년 9 월에 두 용이 금성(金城:王城) 우물 가운데 나타나더니 갑자기 뇌우가 있어 성 남문(南門)을 벼락쳤다.

유리이사금(儒理尼師今) 즉위. 33 년 4 월에 용이 금성(金城) 우물에 나타나더니 얼마 있다가 폭우가 서북(西北)으로부터 쏟아져 왔다.

#### 신라 본기(新羅本紀) 제 2

아달라이사금(阿達羅尼師今) 즉위. 11 년 2 월에 서울에 용이 나타났다.

첨해이사금(沾解尼師今) 즉위. 7 년 4 월에 용이 궁(宮)의 동쪽 연못에 나타나고, 금성(金城) 남쪽에 쓰러진 버드나무가 저절로 일어났다.

미추이사금(味鄒尼師今) 즉위. 원년 3 월에 용이 궁(宮)의 동쪽 연못에 나타났다.

---

<sup>6</sup> 위 인터넷 자료

<sup>7</sup> 위 인터넷 자료

신라 본기(新羅本紀) 제 3

자비마립간(慈悲麻立干) 즉위. 4년 2월에 용이 금성 우물 속에 나타났다.

소지마립간(昭知麻立干) 즉위. 12년 3월에 용이 추라정(鄒羅井)에 나타났다. 22년 4월에 폭풍이 불어 나무를 뽑아뜨리고 용이 금성(金城) 우물에 나타나고, 서울에 누린 안개가 사방으로 덮였다.

신라 본기(新羅本紀) 제 4

법흥왕(法興王) 즉위. 3년 정월에 (왕이) 친히 신궁(神宮)에 제사할 때 용이 양산(陽山) 우물 속에 나타났다.

진흥왕(眞興王) 즉위. 14년 2월에 왕이 소사(所司)에게 명하여 월성(月城) 동쪽에 신궁(新宮)을 건축하게 하였는데, 그 곳에서 황룡이 나타나므로 왕이 이상히 여겨 이를 불사(佛寺)로 개조(改造)하고 절 이름을 황룡(黃龍)이라 사(賜)하였다.

진평왕(眞平王) 즉위. 50년 여름에 큰 가뭄이 있어, 시장을 옮기고 용을 그려 비오기를 빌었다.

신라 본기(新羅本紀) 제 5

문무왕(文武王: 제 30대) 즉위. 21년 7월 1일에 왕이 돌아가니, 시(諡)를 문무라 하였다. 여러 신하가 유언(遺言)에 의하여 동해구(東海口) 대석상(大石上)에 장사하였다. 속전(俗傳)에는 왕이 용(龍)으로 화하였다 하여 그 돌을 대석상(大石上)이라 한다.

신라 본기(新羅本紀) 제 9

경덕왕(景德王) 즉위. 23년 3월에 폐성(孝星)이 동남방에 보이고, 용(龍)이 양산(楊山) 아래에 나타났다가 얼마 아니하여 날아갔다.

신라 본기(新羅本紀) 제 11

경문왕(景文王) 즉위. 15년 5월에 왕궁의 우물에 용(龍)이 나타났다가 잠시 운무(雲霧)가 사방에서 모이더니 (용이) 날아가 버렸다.

신라 본기(新羅本紀) 제 1, 혁거세 5년에 처음으로 용이 출현하고 그 뒤에 태어난 계집 아이는 훗날 왕비가 된다. 60년 9월, 용이 두 마리가 나타나더니 느닷없는 자연 재해가 발생한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고대 사회에 자연 재해는 나라의 불운을 뜻했다. 용의 출현 이후 나라의 불운을 연관 짓는다면 이는 왕실의 불운, 즉 왕의 사망을 의미했다. 실제로 6개월 뒤 왕은 사망한다. 이후에도 계속된 용의 출현은 왕의 탄생, 왕비의 탄생과 같은 길조나 왕의 사망이나 왜(倭)의 침입과 같은 흉조, 가뭄으로 인한 왕실의 제사 등의 나라의 중요한 일의 사건을 암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뭄으로 인한 왕실의 제사는 우리 나라의 용 신앙 성격을 보여주는 예로 용신이 고대 사회에서 기우제의 대상이었음을 알려준다.

왜 하필 용이었을까? 고대 인도에서 용왕은 바다를 지키는 신으로 겨울에는 지하 깊숙이 내려갔다가 봄에 다시 올라온다는 것을 상기해 보자. 사계절에서 봄은 만물의 탄생을 의미한다. 싹이 돋고 꽃이 피고, 활기가 돋는 자연은 그 생명력을 되찾는다. 생명력을 되찾는 봄에 복귀하는 용은 이를 가능케 하는 힘이 있다고 여겨졌다. 『삼국사기』에서도 용의 출현은 주로 봄에 이루어진다. 생명력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용의 성격 때문에 우리 나라 고대 농경 사회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용신은 자연히 섬겨야 하는 신이다. 그리고 그러한 용신에게 비를 내려 달라고 소원하는 주체는 나라의 주인인 왕이다. 왕에게만 그러한 능력이 부여된다. 결국 용의 출현이 왕의 활동을 예시하게 되는 것에는 고대 사회에서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백제는 신라와 달리 검은색의 용이 등장한다. 흑룡은 백제에서만 보이는 것으로 이것의 등장은 모두 불길한 징조를 나타냈다.

백제 본기(백제본기) 제 1

기루왕(己婁王) 즉위. 21년 4월에 용 두 마리가 한강에 나타났다.

백제 본기(백제본기) 제 2

비류왕(比流王) 즉위. 13년 4월에 왕도의 우물물이 넘치더니 흑룡이 그 속에서 나타났다.

백제 본기(백제본기) 제 3

비유왕(毗有王) 즉위. 29년 9월에 검은 용이 한강에 나타났는데, 잠깐 동안 짙은 구름과 안개가 몰려 어두워지자 날아갔다. 임금이 돌아가셨다.

백제 본기(백제본기) 제 4

문주왕(文周王) 즉위. 3년 5월에 웅진에 흑룡이 나타났다.

백제 본기(백제본기) 제 6

의자왕(義慈王) 즉위. 5월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천왕사(天王寺)와 도양사(道讓寺)의 두 탑에 벼락이 쳤으며, 또 백석사(白石寺) 강당에도 벼락이 쳤다. 검은 구름이 용처럼 동쪽과 서쪽 공중에서 서로 싸우는 듯 하였다.

실제로 비류왕(比流王) 즉위 13년, 흑룡의 등장 이후 가뭄이 일었고, 비유왕(毗有王) 즉위 29년에 보이는 흑룡 이후 왕이 사망했다. 또한 문주왕(文周王) 즉위 3년에 흑룡이 나타난 이후 이듬해에 왕이 피살되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의자왕(義慈王) 즉위 5월에 기록된 용의 언급인데, 이는 백제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었다. 신라의 용과 황룡의 출현은 길조와 흉조를 예시하였으나 굳이 구분하자면 황룡은 보다 긍정적인 성격으로 인식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백제의 흑룡은 왕의 사망이나 나라의 멸망과 같은 흉조를 의미하는 것이 틀림없었다.

신라와 백제에서 나타난 용의 기록에 비해 고구려는 그 존재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음에 제시된 하나의 기록으로 용의 출현이 제시될 뿐이다.

고구려 본기(高句麗本紀) 제 1

시조 동명성왕(始祖 東明聖王). 3년 3월에 황룡(黃龍)이 홀(골)령(鵠嶺)에 나타났고, 7월에 경운(慶雲)이 홀령에 나타났는데, 빛이 푸르고 붉었다.

고구려 본기에 단 한번 기록된 용 등장의 주인공은 다름아닌 긍정적 성격을 띠는 황룡이다. 동명성왕(東明聖王) 3년에 황룡이 등장한 이후 4개월 만에 경운(慶雲), 즉 상서로운 구름이 홀령

에 나타난다. 이를 통해 당시 고구려에는 복되고 길한 일이 나라에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알렸던 것은 다름아닌 용의 등장임을 다시 일깨워 준다. 하지만 이후 용에 대한 기록은 고구려에서 찾아볼 수 없다. 용은 물의 신이다. 한반도의 남부에 위치하여 바다에 둘러 쌓인 신라나 백제에 비해 북부와 만주 벌판, 육지가 나라 영토의 주를 이룬 고구려의 지리적 환경을 생각해 보면 용신을 숭배하기에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삼국사기』의 열전에도 용의 기록이 있고 이 또한 예시적 성격을 띠고 있다. 결론적으로 삼국 본기의 기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용의 출현은 주로 봄에 이루어졌고 겨울에는 등장하지 않으며 장소는 물과 관련되는 것이 많다. 용의 자연 생산적인 힘은 물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용신은 고대 농경 사회에 마땅히 섬겨야 하는 신이었다. 그리고 그를 주재할 수 있는 것은 왕이기에 용의 출현은 곧 왕의 활동을 예시하였고, 실제로 용의 등장 이후에 왕이 탄생하거나 사망하는 등 나라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김부식은 왕의 행적을 표현함에 있어 용을 등장시키며 그 나름대로 왕에 대한 예우를 갖추었다. 또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가능했던 그 기저에는 용이 예시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 주술성을 보인다는 당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 2. 혜성(彗星)의 출몰(出沒)

왕의 활동을 용을 등장시켜 미리 예시한 것처럼 『삼국사기』에는 적의 침입 또한 다른 어떤 것에 빗대어 극복한 양상을 표현하며 주술적인 성격을 나타낸다. 주술성을 지닌 상징은 바로 패성(孛星) 또는 혜성(彗星) 등으로 표현되는 별이고, 『삼국사기』에서 그 출현 횟수는 70 번이 넘는다. 삼국 본기 중 신라 본기(新羅本紀)에서 그저 아름답기만 할 것 같은 별의 출현은 왜(倭), 즉 일본의 침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첫 시조부터 언급된 패성의 출현과 그 이후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혜성이 전부 왜의 침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침입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표현된 혜성 출현을 경덕왕(景德王) 즉위 18~19 년의 기록으로 설정하여 논의할 것이다.

신라 본기(新羅本紀) 제 9

경덕왕(景德王) 즉위. 18 년 3 월에 혜성(彗星)이 나타나더니 가을에 가서야 없어졌다.

20 년 4 월에 혜성(彗星)이 나타났다.

『삼국사기』 신라 본기(新羅本紀) 제 9 경덕왕(景德王) 시기 혜성(彗星)은 출현은 곧 일본의 침입을 의미한다. 왜 일본인가? 신라 본기를 살펴보면 당이나 고구려, 백제, 왜의 침입에 있어 그 나라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며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경덕왕 즉위 18 년에

일어난 사건인 일본의 침입은 단지 “혜성(彗星)이 나타났다.”라고 표현되어 있을 뿐이다. 여기서 왜와 일본을 구분 지은 이유는 신라 본기(新羅本紀) 제 6 문무왕(文武王) 즉위 30 년 기록에 “왜국이 국호를 고쳐 일본(日本)이라 자언(自言)하였는데 (그 나라가) 해 나오는 곳에 가까운 까닭으로 그와 같이 이름지은 것이라 한다.”고 한 것에 있다. 전자인 왜는 문무왕 이전의 일본이고, 후자는 문무왕 이후 일본이라 이름 고친 뒤의 일본이다. 그렇다면 왜 다른 나라의 침입에 대해서는 자연 현상을 빗대지 않고 일본의 침입에 대해 혜성을 끌어 왔을까?

제기한 물음에 답하기에 앞서 일본과 왜를 또한 같은 나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의견<sup>8</sup>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다. 『삼국사기』와 같은 역사서인 『구당서』에 “일본이 왜국을 병합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 둘을 구분 짓느냐 구분 짓지 않느냐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기에 김부식의 기록에만 입각하여 일본과 왜를 같은 나라로 보고 살펴보고자 한다.

경덕왕 즉위 이후 원년 10 월에 일본국 사신이 내조하였으나 신라는 이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2 년 2 월에 “중국 의식(中國儀式)의 의관(衣冠)도 저절로 습용(襲用)하였다.”는 기록이나 3 년 3 월 “당에 사신을 보내어 말을 바쳤다.”는 기록에 따르면 신라는 중국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거부감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신라는 대대로 당과의 관계가 밀접했기 때문이다. 당과의 관계를 꾸준히 이어 가는 와중에도 일본은 종종 사신을 보내 왔고, 신라는 계속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라 본기(新羅本紀) 제 9

경덕왕(景德王) 즉위. 12 년 8 월에 일본국(日本國) 사(使)가 이르렀는데 오만무례(傲慢無禮)하므로 왕이 접견(接見)하지 아니하니 곧 돌아갔다.

당과는 사대 관계를 맺고 오히려 조공을 받거나 상대적으로 왕을 접견조차 못하는 일본은 화가 났을 것이다. 경덕왕 16 년에서 18 년 동안 관계를 개편하고 주(州)를 정리하는 대대적인 일을 벌이며 신라는 바쁜 나날을 보내니 평화적인 관계를 못 맺을지언정 쳐들어가고야 말겠다는 일본의 의지를 당연히 알 리가 없었을 것이다. 이 시기 『續日本紀』에 따르면 실제로 일본은 “소년들에게 명하여 매국에 20 인씩 신라어를 학습케”하며 기마를 배우고 군사적 훈련을 받는 등 신라를 대대적으로 침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

<sup>8</sup> 고대 역사서에 기록된 일본과 왜를 두고 같은 나라로 보지 않는 새로운 의견이 있다. 그에 대한 근거로 『구당서』의 기록이 제시되어 있다.

-김운회, <일본(日本), 왜(倭)를 정벌하다>, 「김운회의 ‘새로 쓰는 한일고대사’」 14 백제는 신화다3, 프레스리안, 2008.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57034>, 검색일자: 2015.12.07)

당시의 상황을 바탕으로 이제 경덕왕 즉위 18 년과 19 년에 표현된 혜성의 출현은 일본의 침입이라는 것에 무게가 쏠린다. 일연의 『삼국유사』에 따르면 같은 시기 초하루에 두 해가 나란히 나타나 열흘 동안 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하늘에 해가 두 개가 떠 있다는 것은 당시 나라에 변고가 생겼음을 의미했다. 하나의 태양이 신라를 의미하고 다른 하나가 일본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혜성이 나타나더니 가을에 없어졌다거나 그 이듬해 혜성이 나타났다는 기록으로만 표현할 뿐이다. 일본의 신라 침입은 가능성이 충분한 사건이기에 결국 혜성은 일본을 의미하게 된다.

이제 첫 번째 혜성의 출몰에 관해 논하겠다. 혜성이 나타났지만 결국은 사라지게 되었다. 이는 일본이 쳐들어와 장기간 전쟁을 벌인 뒤 결국 신라 군이 승리하게 됨을 의미했다. 이를 실제 사건이 아닌 주술적인 의미를 띄는 어구로 설명한다면 당시 신라가 일본의 침입에 있어서 혜성을 원형 상징물로 설정하여 이를 극복하길 원했다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듬해 두 번째 혜성의 출현이 있다. 이 시기가 바로 『續日本紀』에 기록된 일본의 침입이다. 이때 혜성의 나타났다는 문장만 있을 뿐, 사라졌다는 기록은 남아 있지 않음으로 보아 첫 번째 혜성의 출몰과 같이 결국에는 혜성이 사라질 수 있다, 신라 군이 일본 군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다는 염원, 혹은 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하며 일본국의 침입에 대한 언급 없이 혜성의 출현, 출몰로만 기록으로 남기길 원했다면 그 또한 이를 주술적인 의미로 썼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당시 사람들에게 혜성의 출몰은 혜성의 출현, 일본의 침입을 막기 위한 주술적 염원이 담긴 극복 방법이었던 것이다.

### III. 결론

본고에서는 언어와 행위가 가지는 주술성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여 로버트 단턴의 『고양이 대학살』 제 2 장에서 주술성을 띄는 ‘고양이’처럼 『삼국사기』에서도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그리고 그 증거는 용의 출현으로 인한 나라의 중요 사건 예시와 혜성의 출몰로 표현되는 왜의 침입과 격퇴라는 두 가지였다.

첫 째로 고대 농경 사회에 물을 수호하는 용신은 자연히 섬겨졌고 그를 주재할 수 있는 것은 왕이기에 용의 출현은 곧 왕의 활동을 예시하였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용의 등장 이후에 왕이 탄생하거나 사망하는 등 나라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가능했던 김부식의 당시 의식에는 용이 예시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 주술성을 보인다는 당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 째로 『삼국사기』에 나타난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혜성의 출현은 일본의 침입을 의미했고, 그를 막기 위한 주술적 염원이 담긴 극복 방법으로 원형 상징물인 혜성의 사라짐에 대해 기록하며 이것 또한 주술성을 가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삼국사기』는 주술성을 설명하기에 타당한 근거로 가져올 만한 설화가 생략되어 있고, 이것이 과연 당대 사람들의 인식이었는가, 아니면 저자 김부식 개인의 인식이었는가의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필자는 동서양에 공통으로 보이는 ‘언어와 행위의 주술성 고찰’이라는 논제 아래 주술성을 띄는 언어와 행위로 표현된 기록을 살펴 『삼국사기』를 분석하고자 했고, 이는 이전에 연구된 바가 많지 않기에 새로운 길에 발자국을 남겼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황민정, 「한국 고대사회의 용 신앙 연구 :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석사 논문, 1999.

### 인터넷 자료

김운희, <일본(日本), 왜(倭)를 정벌하다>, 「김운희의 ‘새로 쓰는 한일고대사’」 14 백제는  
신화다 3, 프레시안, 2008

두산백과, 네이버지식백과

### 기타자료

김부식, 『삼국사기』, 이병도 역, 을유문화사, 1996

이상국 교수님의 삼국사기 강의안 中

金富軾, 『高麗史』 卷98, 列傳 11

신채호, (1972), 『조선상고사』 총론, 조선일보 {조선사}

趙甲濟, (2007), 「한국인이려면 三國史記를 읽어야」.